



김민석 국무총리, 「알-사예드」 카타르 통상 담당 국무장관 접견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30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아흐마드 알-사예드(Ahmad bin Mohammed Al-Sayed)」 카타르 통상 담당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한국과 카타르 간 투자를 비롯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김 총리는 먼저 중동 전쟁으로 인해 카타르가 피해를 입은데 대해 위로를 표하고, 카타르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LNG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였다.
 - 김 총리는 우리 국민들도 카타르에 대해 매우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으며 카타르의 조속한 복구를 기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 알-사예드 장관은 한국이 어려운 시기에 카타르를 굳건히 지지해주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부 생산시설이 복구되면 카타르의 에너지 생산 역량이 어느 때보다도 강해질 것으로 본다면서, 계속해서 한국에 LNG를 공급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김 총리가 방한 소감을 문의한데 대해, 알-사예드 장관은 금번에 한-카타르 간 투자협력 강화를 위해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하게 되었으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기업들과 만나 유익한 논의를 가졌다고 하였다.
 - 알-사예드 장관은 카타르가 특히 AI, 디지털화, 바이오제약 등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높으며, 금번 방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투자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나아가 알-사예드 장관은 카타르의 유망 기업들에 대한 한국의 투자 역시 환영한다고 하면서, 양국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의 투자협력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하는바,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의 다양한 관계기관 및 민간 부문간 소통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또한 알-사예드 장관은 방산 등 분야에서도 한국과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김 총리는 유익한 방한이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고 하고, 카타르를 포함한 중동 지역은 우리나라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잠재력이 큰 만큼, 앞으로 양국간 경제뿐 아니라 포괄적인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 고 하였다.

- 아울러 김 총리는 최근 우리나라에 글로벌 AI 허브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였으며, 알-사예드 장관은 이에 대해 관심을 표하며 카타르가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책임자	팀 장	조정희 (02-2100-2109)
		담당자	서기관	이에은 (02-2100-2132)

